

“프로야구 선수들과 운동하며 꿈 키워요”

동강공공스포츠클럽 재능기부 이벤트 KIA 박준표·정해영·롯데 김원중 등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지역 야구 꿈나무들에게 프로 선수들과 함께 호흡하며 꿈을 키우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사) 동강공공스포츠클럽은 최근 동강대 인조잔디구장에서 ‘프로야구 선수 초청 재능기부’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에는 지역 연고 팀인 KIA 타이거즈의 강경하·김현수·박준표·정해영을 비롯해 광주 출신인 롯데 자이언츠 김원중과 삼성 라이온즈 이성규 등이 참여했다.

KIA 투수 박준표는 동강대를 졸업하고 2013년 KIA에 지명 받아 팀 불펜에서 맹활약 중인 국내 프로야구 스타 플레이어다.

동강공공스포츠클럽은 2022년 대한체육회에서 추진하는 선수 육성 지원 사업에 선정돼 전문선수반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이번 재능기부 시간을 준비했다.

동강공공스포츠클럽에서 프로 무대를 꿈꾸는 학생들은 평소 동경하던 프로야구 선수들에게 운동기술 등을 배우고 다양한 경험담을 들으며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동강대는 지난 2018년 대한체육회가 공모한 ‘공공



KIA타이거즈 투수 정해영(왼쪽 두번째)이 ‘프로야구 선수 초청 재능기부’ 행사에서 학생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동강대 제공>

스포츠클럽 사업’에 선정돼 시민 건강과 스포츠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동강공공스포츠클럽 조남철 회장은 “이번 재능기부는 우수선수를 조기 발굴하고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연계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자리다”

며 “특히 지역민 뿐 아니라 체육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소외계층, 그리고 불가피하게 운동을 중단한 엘리트 선수 등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선진형 스포츠 복지 시스템 구축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신세계, 사랑의 헌혈 캠페인 진행



<광주신세계 제공>

(주)광주신세계(대표이사 이동훈)는 7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과 함께 광주신세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부터 8일까지 2일간 진행되는 사랑의 헌혈 캠페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혈액 부족 문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신세계 측은 헌혈 캠페인에 참여하는 임직원들이 근무시간 중 자유롭게 헌혈에 동참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증정품을 전달하

는 등 참여 독려를 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채혈실 내부 소독, 참여자 발열검사,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캠페인을 추진 중이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이 크다는 소식을 접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헌혈캠페인을 추진·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김성준 관세행정관 1월의 ‘으뜸 광주세관인’ 선정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7일 철저한 기업심사를 통해 탈루세액을 추징해 세수증대에 기여한 김성준 관세행정관을 1월의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선정해 포상했다.

1월의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선정된 김성준 행정관은 다국적기업이 과세대상인 상표권료 등을 비과세대상인 광고선전비로 위장해 지급한 사실을 적발, 7억여 원을 추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밖에 외환 제3차 지급(약 18억원)을 적발하는 등 국부유출 방지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승환 세관장은 “앞으로도 ‘으뜸 광주세관인’을 매월 선정·포상에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활력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김성준(오른쪽) 관세행정관이 1월 으뜸 광주세관인 포상 수여식 후 정승환 세관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달의 5·18민주유공자에

‘고문 피해자’ 차재연 씨 선정



국립 5·18 민주묘지 관리소는 이달의 5·18민주유공자로 고차재연(사진) 씨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고인은 1980년 5월 항쟁 당시 신민당 당무부위원장으로 재직하다 5월 15일 보안부대 지하실로 연행돼 내란음모자백을 강요

받으며 둔기 등으로 전신을 구타당했다.

석방된 이후에도 그는 당시 고문 후유증으로 다리를 절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삶을 살다 2004년 2월 숨졌다. /정병호 기자 jusbh@

조선대 김희욱 씨,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표창

조선대 기획조정실 성과관리팀 김희욱(사진) 씨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유공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유공 표창은 대학 정보공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교육정책 수립에 기여한 자를 선정하고자 마련됐으며 위원회 심사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됐다.

김희욱 씨는 대학의 대학정보공시 총괄담당자로서 담당자 교육 시행 및 정확한 통계 결과 산출, 대학정보공시센터에 개선의견

전달 등을 통해 공시 고도화를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은 정확한 공시자료 산출 및 대학 공시의 원활한 운영으로 이어져 관련 자료를 열람하는 학생, 학부모, 산업체 등 교육 수요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인사

- ◆감사원 <4급 전보 ▲지방행정감사2국 광주사무소 오화준

TV프로그램 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⑥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⑦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2부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활속 오늘 아침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⑧	25 아침마당		50 이 맛에 산다	40 맨 인 블랙스 스페셜 50 좋은 아침
⑨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15 국가대표 와이프(재) 55 여기는 베이징 <피겨스케이팅/스노보드>	30 930 MBC 뉴스 45 2022 베이징 겨울올림픽 <피겨스케이팅/스노보드>	55 SBS 베이징 2022 <피겨 스케이팅/스노보드 /알파인 스키/프리스타일 스키>
⑩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⑪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20 KBS네트워크특선 빅 부라더 55 UHD 숨터(재)			
⑫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⑬	00 2022 베이징올림픽 <아이스하키>			
⑭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2022 베이징올림픽 <아이스하키>	30 여기는 베이징 <스노보드/바이애슬론 /스피드스케이팅/루지>	30 MBC 뉴스 40 2022 베이징 겨울올림픽 <스노보드/크로스컨트리>	30 SBS 뉴스 40 SBS 베이징 2022 <스노보드>
⑮	30 영상앨범 선재			
⑯	00 사사건건			
⑰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재)			20 SBS 뉴스 30 닥터 365 35 최강 1교시
⑱	00 6시 내고향	15 여기는 베이징 <스노보드/크로스컨트리스키>	30 2022 베이징 겨울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루지>	30 SBS 베이징 2022 <스피드 스케이팅>
⑲	00 뉴스7 광주전남 40 이웃집 찰스			
⑳	30 국가대표 와이프			
㉑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00 SBS 8 뉴스 40 KBC 8 뉴스
㉒	00 더 라이브 30 2022 베이징올림픽 <루지-여자 1인승 4차>	00 포켓몬 달 생각하고	00 MBC 뉴스데스크 30 PD수첩	00 신발 벗고 돌싱포맨
㉓	2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30 메이킹 베이징	30 베이징 투나잇
㉔	00 2022 베이징올림픽 하이라이트	20 우리끼리 작전타임(재)	20 TV예술무대	10 나이트라인 40 약의 마음을 읽는 자들(재)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10 한국의 둘레길	17:00 EBS 뉴스
05:30 클래스 e	10:30 한국기행	17:20 못 말리는 어린 양 손
05:5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30 우당탕탕 은하인전선(재)
06:10 세계테마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	17:45 최고다! 후기삼박지
07:00 코코몽3	12:00 EBS 글로벌 뉴스	18:00 생방송 워터쇼 해결단
07:15 출동! 슈퍼핑크	12:10 버터가 사람들	19:00 레이디버그
07:30 마법버스 타요	13:00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19:30 한국의 둘레길
07:45 고고다노 공룡탐험대	14:10 EBS 다큐프라임	19:50 극한직업
08:00 당동맹 유치원	15:0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20:40 세계테마기행 <아틀라스 바다 횡단기>
08:30 엄마 까투리	15:25 클래스 e	21:30 한국기행 <돌고 돌아 경북 오지 2부 별 보러 오지, 포산마을>
08:45 방귀대장 뽕뽕이	15:45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21:50 EBS 다큐프라임
09:00 속속 배달부 빙빙	16:00 마사와 곰	22:4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09:15 세계의 비밀 수호대 번개맨	16:15 오드북, 이상한 아이들	
09:30 추피와 친구들	16:30 당동맹 유치원(재)	
09:40 우리집 유치원	16:50 명탐정 피트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8일(음 1월 8일 壬辰)

<p>36년생 복잡다단한 판세가 계속될 것이니 종합적인 고찰이 절실히 요청된다. 48년생 절대로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60년생 우회하더라도 지장이 없으니 착실하게 임하라. 72년생 무리한다면 상황을 악화시키기에 충분하다. 84년생 무리하지 않게 조처하라. 96년생 누적된 모습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47, 75</p>	<p>42년생 타인의 실행 방식을 모방한다는 것은 자기 한계의 징표임을 알게 되리라. 54년생 명분에 이끌리다 보면 실속이 없어지는 법이다. 66년생 뜻밖의 인연을 주의해야만 발전을 기약한다. 78년생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처한다면 가능성이 높다. 90년생 순서와 방법대로 행하라. 02년생 소극적인 진전이지만 의미는 있다. 행운의 숫자 : 03, 88</p>
<p>37년생 애초에 마음먹은 대로 추진하는 것이 유익하다. 49년생 잔손질이 여러 번 가야 마무리가 될 것이다. 61년생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일이 원하는 대로 이뤄질 수 있다. 73년생 현재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최상책이다. 85년생 재물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97년생 강인한 정신과 굳센 추진력이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34, 78</p>	<p>43년생 상조간의 조화와 균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55년생 소중한 것을 잃었다가 다시 찾는 기분이 들 것이다. 67년생 광명정대한 자세로 당당하게 임해야 오해가 생기지 않는다. 79년생 양 쪽 힘을 모두 고려해봐야 한다. 91년생 수 더운 구들이 쉬는 법이다. 03년생 계속될 것이라는 생각은 작각일 뿐이다. 행운의 숫자 : 10, 59</p>
<p>38년생 인식하고 있는 관점의 차원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일이 벌어질 수다. 50년생 압박 있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볼 일이 있다. 62년생 멀리서부터 상스러운 기운이 비춰 오고 있다. 74년생 기운이 상승세를 타면서 입지가 굳어지는 상국이다. 86년생 확립적인 시각은 오류를 부르게에 충분하다. 98년생 한 번 실수한다면 오점으로 남으리라. 행운의 숫자 : 23, 74</p>	<p>44년생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는 운세이다. 56년생 좋은 일이 있는 과정에서 마도 많이 끼는 법이다. 68년생 형태를 수습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80년생 사세의 기단을 쳐야할 결정적인 시기이니라. 92년생 소중한 사람이나 정보를 접하게 될 수 있다. 04년생 잘 되어 있으니 무경만 열면 된다. 행운의 숫자 : 02, 63</p>
<p>39년생 대국의 구성을 새롭게 해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 51년생 참신한 발상 속에서 새로운 시야가 트일 것이다. 63년생 재물과 인연이 깊은 날이니 다방면으로 노력하라. 75년생 마무리의 처리가 가지의 고저를 좌우한다. 87년생 불합리한 요소는 없는 지 점검해 보자. 99년생 표출하지 말고 흡입해야 할 시기이니라. 행운의 숫자 : 48, 83</p>	<p>45년생 운용만 잘 한다면 큰 이익을 꾀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 57년생 이면의 실체를 알고 나면 충격을 받을 것이다. 69년생 앞뒤 가리지 말고 목표를 향해 무조건 전진해야 한다. 81년생 미끼일 수 있으니 유혹에 넘어가서는 아니 된다. 93년생 미리 쟁겨 두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46, 69</p>
<p>40년생 중대를 가지고 일관성 있는 진행을 해나감이 성사의 관건이 될 것이다. 52년생 원리를 잘 응용할 줄 아는 삶의 지혜가 요망된다. 64년생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맺을 할 때까지 신중해야겠다. 76년생 적폐가 보이거늘 즉시 바로 잡아야 하느니라. 88년생 가득 찬 것 같지만 허술하다. 00년생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다. 행운의 숫자 : 30, 81</p>	<p>46년생 일관성을 가지고 끈기 있게 매달려야 할 때다. 46년생 갑담을 차치해야만 길조를 상승시킨다. 58년생 효과가 미치지 않는 범위가 놓여 있습니다. 70년생 기교를 부리지 말고 본래대로 행하라. 82년생 천 길 방죽도 개미구멍으로 무너지는 법이다. 94년생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대응했을 때 효과를 본다. 행운의 숫자 : 00, 85</p>
<p>41년생 노력 앞에서는 그 어떠한 화도 비껴갈 것이다. 53년생 나중으로 미루다가는 큰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 65년생 유연한 행운이 상당한 기쁨을 안겨다 주는 형세이다. 77년생 의미 있는 일을 접하는 영귀함이 보인다. 89년생 돌발적인 변수가 보이니 기만하게 대처해야겠다. 01년생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4, 96</p>	<p>47년생 막힌 물꼬가 시원하게 트이는 이치이다. 59년생 번거롭다고 해서 피하기만 한다면 해결될 수 없느니라. 71년생 주관을 기초한 추측은 오류를 낳는 법이다. 83년생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을 명심하라. 95년생 인과응보의 원리로 씨 사필귀정하리라. 행운의 숫자 : 15, 89</p>